

“조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에로틱 조선

박영규 지음

“에로부터 평양은 색향(色鄕)으로 유명했는데, 그곳이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이왕이면 평양감사로 발령받는 것을 선호했는데,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했다. (중략) 북청 하면 물장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시대에는 기생이 많기로 유명했다. 북청에 위치한 함경도 남병영에 소속된 관기의 숫자만 400여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북청 기생이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변방을 지키는 군관들의 현저치 노릇을 한 방직기였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춘화·음담패설·스캔들로 엮본 조선 유교적 이성만큼 성적 본능도 충실 기생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누려

일반적으로 조선은 엄격한 신분질서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기에 충효인의제가 삶의 규범이었다. ‘동방예의지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와 같은 수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유교의 나라’ 이면에 숨겨진 조선의 민낯은 짐작고 고상하지만은 않았다. 유교적 이성만큼 성적 본능에도 충실했다는 것이다. 낮에는 냉철한 윤리의식이 작동했다면, 밤에는 뜨거운 본능이 꿈틀거렸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인들의 성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가 펴낸 ‘에로틱 조선’은 춘화와 음담패설, 스캔들로 엮본 조선의 은밀한 성생활을 다룬다. 저자는 “조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다”며 오랫동안 봉인된 조선의 에로티시즘을 되살린다.

오래도록 금단의 영역이었던 성(性)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책에는 그간 베일에 싸



여 있던 조선의 성 풍속도들마루며 독자들의 은밀한 호기심을 풀어준다. 김홍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춘화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 육담집인 ‘어면승’ 등 자료를 통해 바라본 조선인들의 성생활은 생각보다 과감하고 농밀하다.

‘어면승’에 나오는 일화 가운데, 기생이 손톱을 최고의 남성은 고관대작이 아닌 장성 출신 향리였다. “4년간 함께 산 신숙주는 3위에 그쳤고 호기롭게 질문을 던졌던 한생은 우선순위에 들지도 못했다. 이 일화의 출처가 육담집이라는 걸 감안하면, 기생이 순위를 매긴 기준은 잡자리 기술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기생을 향한 남성들의 열망은 상상 이상이었다. 기생들은 오늘날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콧대 또한 높았다. 향진이는 왕족, 학자뿐 아니라 세속을 떠난 스님까지도 사로잡았다. 저자는 조선의 양반들은 의녀를 첩으로 삼는 것을 선호했다고 설명한다. 건강을 잘 돌보는 데다 한문도 알고 머리까지 좋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이 출중한 의녀는 인기가 높았는데, 이런 의녀를 첩으로 얻으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에로틱 심벌이 된 여인들’에서는 시대적 희망이 됐던 여인들의 이야기다. 기생, 궁녀, 의녀, 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왕만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 궁녀들 가운데는 암암리에 동성애를 즐기다가 혹한 형벌을 받기도 했다.

2부 ‘춘화와 육담의 에로티시즘’은 춘화와 육담을 매개로 당시 성 풍속을 들여다본다. 담뱃대를 문 기생이 관능적인 몸짓으로 한량을 사로잡고 대갓집 마나님과 승려가 밀애를 나누는 장면도 있다. 야심이 만만치 않은 여중은 바깥주인의 욕심을 이용해 신분상승의 꿈에 젖기도 한다.

3부는 ‘조선의 섹슈얼리티와 스캔들’이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스캔들을 모티브로 섹슈얼리티에 접근한다. 전체적인 맥락은 조선 사회가 힘 있고 돈 있는 남성들의 애정 경연장이나 다름없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양상일 것이다.

저자는 “에로스는 인간의 본능이기에 어떤 힘으로 억누르고 어떤 막으로도 뒤덮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샘물 같은 것”이라며 “샘물의 흔적을 쫓아가며 그곳에 담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애환을 통해 조선인들의 나체와 민낯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화와 칼 루스 베데니트 지음·김윤식 등 옮김

‘국화와 칼’은 “일본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손꼽히는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국화(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문화인류학 서적이다. 이번에 을유문화사에서 개정판으로 출간된 ‘국화와 칼’은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데니트가 쓴 것으로, 종전 후 일본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저서다. 미 국무부 위촉으로 작성된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알 수 없었던 일본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제목이 암시하듯 일본 국민은 극도로 섬세한 미감을 지니고 동시에 칼의 냉혹함을 숭배하는 특질을 지닌다. “그러한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일본인은 최고도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약전하며, 군국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탐미적이며, 불순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성이 풍부하며,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융화하면서도 겹쟁이이며,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저자는 일본인의 국민성이 형성된 과정과 배경을 밝혀내기 위해 총체적인 문화 분석을 시도한다. 봉건사회 위계질서와 메이지 유신 과정, 가족제도와 조상 숭배, 육아방식, 사회화 과정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책은 제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처음 나왔다. 그로부터 일본은 많이 변했고, 우리는 일본과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책은 일본 문화의 불변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을 함께 바라보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을유문화사·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제이주열차 이동순 지음

구소련 시절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다룬 연작 성격의 시집이 발간됐다. 시인이자 영남대 명예교수인 이동순이 펴낸 ‘강제이주열차’는 강제이주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슬픈 영혼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다. 시인은 분단 이후 최초 ‘백석 시전집’을 발간한 것을 토대로 했다.

작품집에는 “떠나면 동쪽 끝에서 쫓겨와/평생을 물물처럼 떠돌다 마감한”(고려인 무덤) 이들의 한 맺힌 삶과 죽음이 그려져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자체가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커다란 성과다.

“이번에는 1937년 그 아비규환의 강제이주열차를 타고 고려인들과 더불어 장장 42일 동안 2만 킬로미터의 먼 길을 시름없이 달려가는 회상의 동일성(identity)을 체험했다. 시베리아 철도의 칼바람이 갈라진 열차 날랑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데, 저쪽 구석에서는 앓던 노약자가 몸을 비틀며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강제이주열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나는 한사람의 시인, 즉 견자(見者)로서 낱말로 목격하고 현장에 동참하였다.”

1부에서는 강제이주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시인은 80여년의 세월 동안 소외와 무관심에 방치돼 왔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처절한 수난의 역사를 묘사한다. 삶의 터전이었던 연해주에서 하루아침에 수만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 발판으로 내몰렸던 이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다. 2부에서는 사활린 한인들을 주로 다뤘으며 3부에서는 2018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 담겨 있다. <창비·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감의 배신 폴 블룸 지음·이은진 옮김

흔히 ‘도덕심’과 ‘이타심’의 원천이라 일컫는 ‘공감 능력’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면의 선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공감했다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과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이다.

폴 블룸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며 “공감이 없을 때 더 공평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폴 블룸 교수가 공감 능력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법을 담은 책 ‘공감의 배신’을 펴냈다. ‘아직도 공감이 선하다고 믿는 당신에게’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에는 공감이 이끌어내는 극단성, 근시안적 사고, 비합리성 등 역효과를 파헤친다. 저자는 백인은 흑인보다 백인에게, 한국인은 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쉽게 공감하는 등 공감 대상이 편향적인 점, 일부 사람의 고통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상 등을 조망한다.

저자는 공감의 대안으로 ‘이성’을 제시한다. 이성을 바탕으로 숙고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공감이 배제돼야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심리학, 신경과학, 정치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분석이 담겼다.

저자는 ‘선악의 진화 심리학’, ‘심리학 프리즘’(공저) 등 책을 펴냈으며 심리학, 철학 연구로 스탠포드 상, 렉스 힉스 상 등을 수상했다. <시공사·1만7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희창의 에센셜 클래식 조희창 지음

250여편의 작곡 악보를 모두 외워 암보로 지휘했던 토스카니니, 20대에 희귀병 ‘다발성 경화증’을 앓으며 삶을 마감한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 165년의 커튼콜을 받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음악에 관심이 없던 이들이들 한 번쯤은 들었 법한 이름들이다. 음악사의 정점에 섰던 이들의 삶에는 저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을까.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25인의 거장들의 음악과 삶을 들여다보는 책 ‘조희창의 에센셜 클래식’을 출간했다. 책은 거장들의 어린 시절부터 전성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열정과 질곡으로 가득했던 일생을 짚막하게 간추렸다. 또 각 인물들이 겪었던 흥미로운 일화나 특징적 사건들을 곁들여 이들이 음악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근거를 밝힌다. 특히 게오르크 솔티, 프란체스코 로스트로포비치, 레나타 테발디 등 저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인물들의 경우 당시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각 장의 끝에는 연주자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코너 ‘놓칠 수 없는 음반’과 QR코드를 이용해 연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코너 ‘유튜브에서 보고 듣기’를 수록했다. 이들과 코너에는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쓰여 있어 작품의 의미나 탄생 배경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자가 데미에서 10년간 클래식을 강의했으며 소니뮤직 클래식 담당, KBS ‘클래식 오디세이’ 작가, 월간 ‘그라모폰 코리아’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전설 속의 거장’, ‘클래식 내비게이터’, ‘베토벤의 커피’ 등이 있다. <미디어 쌤·1만8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